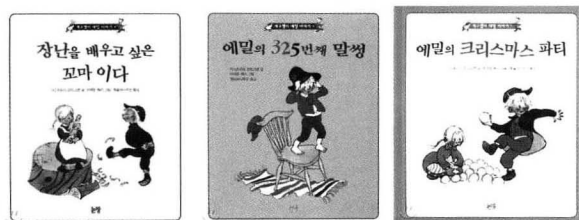




사라진 나라로 간 린드그렌

《사라진 나라》

1944년 3월 어느 날 스톡홀름에 눈이 내리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삐삐’ 라는 이상한 아이도, 개구쟁이 에밀도, 무엇보다 린드그렌이라는 뛰어난 어린이책 작가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아파서 누워 있던 딸아이를 위해 들려주던 ‘삐삐 롱스타킹’ 이야기를, 눈길에 미끄러져 다치는 바람에 집안에서 꿈쩍 못하고 지내던 린드그렌이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글로 쓰지 않았다면, 우리를 어린 시절 텔레비전 앞으로 사로잡았던 <말괄량이 삐삐>는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은 《삐삐 롱스타킹》을 비롯한 100여 권의 어린이책을 출간했고 2002년 1월 94세의 나이로 사망했을 때, 장례식장에 스웨덴 국왕 부부도 참석했을 만큼 자국에서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은 작가이다. 이 책에는 그 자체로 한 편의 동화로 읽히는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와 어린 시절 고향 마을의 풍광과 마을 사람들에 대한 추억, 책에 대한 이야기, 어린이책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등 린드그렌의 글쓰기에 생각이 담겨 있다. 거기다 린드그렌의 기발한 착상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삐삐, 에밀, 키를손, 펠레 등 책 속의 주인공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린드그렌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놓치지 가까운 책이고, 린드그렌의 평소 독자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어린이들을 사로잡은 한 어린이책 작가의 어린 시절과 작품에 대한 뒷이야기를 듣는 재미도 색다른 책이다. **★**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지음 | 비에른 베리 그림 | 햇살과나무꾼 옮김 | 도서출판 논장 | 각권 값 8,000원 ▲

《장난을 배우고 싶은 꼬마 이다》

1980년대에 발표한 세 편의 에밀 이야기 《에밀의 325번째 말썽》《에밀의 크리스마스 파티》

작가가 어린 시절을 보낸 농촌마을을 배경으로 한 에밀 시리즈는 “우리가 놀다가 죽지 않은 건 순전히 기적”이라 할 만큼 자유롭게 뛰어놀았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바탕이 된 작품이다. 린드그렌은 모두 6편의 에밀 시리즈를 발표했는데, 1960년대에 쓴 3편은 《에밀은 사고 뭉치》(논장)로 묶여서 출간이 되었고, 이번에 각각 출간된 《장난을 배우고 싶은 꼬마 이다》《에밀의 325번째 말썽》《에밀의 크리스마스 파티》 3작품은 1980년대에 발표된 작품들이다.

에밀 시리즈는 ‘삐삐’ 시리즈보다는 덜 알려졌지만, 1980년대에 발표한 3편의 에밀 이야기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쓴 작품이라고 소개할 만큼 작가가 애정을 가졌던 캐릭터. 울음을 그치지 않는 손자를 위해 즉흥적으로 만들었다는 에밀은 엉뚱한 행동으로 말썽만 부리지만 너무나 사랑스러운 개구쟁이. 에밀 이야기 역시 스웨덴에서 영화로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시리즈로도 방영될 만큼 큰 인기를 얻었다. **★**

양선희 기자



토요일이 되면 찾아오는 아이

《일주일 내내 토요일》

우렁각시가 내게도 있었으면... 누구나 한번쯤은 우렁각시가 있어서 골치 아픈 일을 해결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법이다. 독일 사람들도 예외는 아닌가 보다. 독일산 우렁각시라 할 만한 천방지축 말썽쟁이 '토요' 라는 괴상한 아이가 자국에서 대단히 사랑을 받고 있다니 말이다.

《일주일 내내 토요일》은 집주인인 로트콜 아줌마의 눈밖에 날까봐 찢쩍대는 소심한 남자인 타센비어 씨가 '토요' 라는 아주 괴상한 아이를 만나 일주일을 함께 지내는 이야기다. 그 일주일 간 타센비어 씨는 무서운(?) 로트콜 아줌마에게 반항하는 법도 배우고 자신에게 늘 꿀당만 먹이는 사장에게 멋지게 한 방 먹이기도 한다. 그리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평소 소원도 이루고, 자신의 방 안에서 북극곰을 만나는 신나는 경험도 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토요' 에게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이다.

“일요일엔 일광욕을 하고,
월요일엔 월요일에 걸린 친구가 찾아오고,
화요일엔 화분이 깨지고,
수요일엔 수도꼭지가 고장나고,
목요일엔 목감기에 걸리고,
금요일엔 금일 휴무!
그럼 과연 토요일엔?”



이 책을 읽는 재미는 토요의 중형무진한 말장난을 따라가 보는 데 있다. 천방지축인 토요의 캐릭터를 가장 잘 살려주는 것도 다름 아닌 이 말장난! 틈만 나면 말썽에, 누가 듣건 말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토요를 도저히 미워할 수 없는 것은 이 기발한 말장난 때문이기도 하다.

그나저나 '토요' 를 만나기 전의 타센비어 씨도 한국의 직장인 입장에서 보자면 그리 불쌍한 것만도 아니다. 타센비어 씨는 틀림없이 토요일 아침,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에 차서 그냥 방 안에(!) 앉아 있었으니 말이다. 리얼리티와 우화성을 동시에 살린 그림을 보는 재미도 솔찮다. 가족이 함께 보기에 좋은 책이다. **추천**

양선희 기자




달님이 선물한 노란 스웨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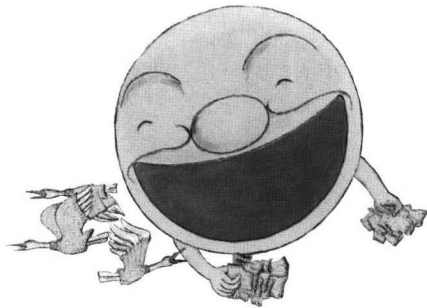
《노란 스웨터》

혼다 도요쿠니는 어느 날 밤, 작업실 창 밖을 바라보다가 달이 노란 스웨터를 입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재미난 발상에서 출발한 《노란 스웨터》에는 '상냥한 마음씨'가 가득하다.

아주아주 추운 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새들이 안쓰러워 달님은 새들에게 노란 스웨터를 선물한다. 숲속의 다른 동물들도 스웨터를 입고 싶어 달님에게 부탁한다. 숲속의 나무와 벌레, 산들도 모두모두 부탁하지만 달님은 매번 “그럼 짜주고 말고” 상냥하게 대답한다.

온통 노란 물결이 이는 숲속. 그때 어디선가 쓸쓸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바로 달님의 스웨터를 입고 싶은 하늘. 숲속 친구들은 넓고 넓은 하늘에게 줄 스웨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난감해지는데... 혼다 도요쿠니는 프랑스 라니온 국제 그림책 원화 비엔날레에서 그랑프리 이카루스 상을 수상했을 만큼 그림책 작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 그는 그림 속 등장인물과 하나가 되어 세계를 만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작업한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책을 읽다 보면 작가가 의도한 대로 따뜻하고 밝은 기운이 번지는 느낌을 받는다.

아이들과 함께 책을 보다가 숨은 그림 찾기를 해도 될 만큼 많은 동물들이 등장하고 수채화로 표현한 동물들이 사랑스럽다. 



▲ 혼다 도요쿠니 글·그림 | 박정선 옮김 | (주)언어세상 | 40쪽 | 값 8,000원
파스칼 튀르드 글·장 샤를 사라쟁 그림 | 신혜정 옮김 | 도서출판 다섯수레 | 32쪽 | 값 8,000원 ▲▲

꼬마 정자의 열 달 간의 모험


《나는 사랑의 씨앗이에요》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 건지 궁금해하는 아이들에게 읽히기 좋은 책이 나왔다. '걸음마 성교육'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이 책은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4세부터 초등 학교 저학년 아이들, 엄마가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이다.

어느 화창한 봄날, 다른 형제들과 빙빙 맴돌기만 하는 생활에 지루해하던 꼬마 정자는 아빠 몸에서 엄마 몸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모험을 시작한다. 봄에 시작된 꼬마 정자의 모험은 당연히(?) 겨울날 밤 마무리된다. 이처럼 이 책은 '꼬마 정자'의 모험을 주제로 한 동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성교육이라는 다소 난감한 주제가 아이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아기는 부모의 사랑의 결실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 장점이다.

열 달이라는 시간을 채우면 무조건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꼬마 정자의 의지에서 이 모험이 출발했듯, 엄마의 씨앗인 난자를 만나고 수정란이 되고 '사랑의 아기'로 자라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아기 스스로의 의지라는 걸 보여준다.

이처럼 굳이 목소리 높이지 않고도 아이들에게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해주는 이 책의 미덕은 엄마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듯하다.

다섯수레에서는 이 책을 선두로 7세 이후부터 청소년 대상까지 4권의 성교육 책을 순차적으로 더 발간할 예정이다. 

양선희기자



“나 단순한 아기 돼지가 아니라구요!”

헤엄치고 싶고, 말 타고 싶고, 날고 싶고... 누구 소원일까요? 바로 엉뚱하고 똥똥해서 '똥이' 로 불리는 아기 돼지의 소원입니다. 웬 돼지가 이렇게나(!) 어렵고 많은 소원을 갖고 있냐구요? 당연히 형도 비웃었지만 개구리, 오리, 거북이 등에게 꾀꾀이 가르침을 받는답니다. 하지만 결과는 번번이 실패. 그런데도 똥이는 기어이 헤엄을 배우겠다고 하고, 말을 타려고 하고, 날려고 하지요. 좌충우돌하는 똥이의 모습이 꼭 우리 아이들 같지 않나요? 만지지 말라고 해도 만지고 싶은 건 기어이 만지려 하고, 뜨거운 것도 꼭 만져보아야만 알고... 이 꿈꾸는 아기 돼지 시리즈는 유아들과 꼭 닮은 '똥이' 라는 아기 돼지를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실수를 통해 무언가를 하나씩 익혀간다는 건 소중한 경험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모두 3권이고, 각 권마다 돼지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똥이의 엄청난 모험이 예쁜 크레파스 그림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엘스베트 폰테인은 히딩크의 나라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엘스베트 폰테인이 창조한 아주 사랑스런 캐릭터, 똥이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

▼ 꿈꾸는 아기 돼지 시리즈 | 엘스베트 폰테인 글·그림 | 엄혜숙 옮김 | 사계절 | 각권 값 7,000원



카롤리네 케어 글·그림 | 이목용 옮김 | 효리원(주) | 32쪽 | 값 9,000원 ▲▲

예쁘고 착한 주인공에 싫증난 아이들에게

《난 착한 아이가 되기 싫어!》

독일어에는 '슈바이네훈트 Schweinehund'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슈바인' 은 돼지, '훈트' 는 개를 뜻하고, 이 둘의 합성어인 '슈바이네훈트' 는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 즉 제2의 자아를 의미합니다. 짐작하듯 제2의 자아는 '나쁜 마음' 으로, 세수하기, 이 닦기, 시금치 먹기 등의 착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항상 유혹하지요.

《난 착한 아이가 되기 싫어!》의 플로렌티네도 '꾸꿀이(상체는 돼지, 하체는 개)' 가 자꾸 “이 닦지 말고 침대에서 초코 과자나 먹자” 고 하고 아이스크림처럼 단것만 먹자고 해서 엄청 똥보가 돼버립니다. 얼마나 똥똥해졌는지 회전목마에 끼여 못 나오게 되었답니다.

똥보가 되기 싫은 플로렌티네는 이 일 이후 야채와 과일만 먹고 자기 방도 착착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도 하루에 다섯 번씩 닦고, 귀도 싹싹 씻고... 그런데, 플로렌티네는 꾸꿀이가 보이지 않자 이상하게 시무룩해집니다. 둘은 이제까지 아주 사이가 좋았으니까요.

시무룩한 플로렌티네에게 다시 나타난 꾸꿀이. “홀딱 삼키고 싶을 만큼” 서로가 좋은 사이. 그래서 이 둘은 초코 과자를 딱 한 개씩 나눠 먹기로 하고 함께 잘 지내기로 했습니다.

매번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일에 지친 부모도, 예쁘고 착한 주인공만 등장하는 그림책에 질린 아이에게도 새로운 재미를 주는 책입니다.

배경이 되는 무대를 직접 만들어 사진을 찍은 다음, 그 위에 덧그리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한 저자의 초현실주의적인 그림이 낯설긴 합니다. 하지만 손에 잡힐 듯 입체적인 느낌이 들지요. 이 책은 2002년 독일 청소년문학상에 추천된 6권의 후보작 중 한 권이기도 합니다. **★**

